

-(으)ㄹ 정도로

~할 정도로, ~할 만큼

어떤 상태에 이를 만큼이었는지를 들어 정도를 나타냅니다. 한국어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'매우'라고 하기보다 생생한 비유를 자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정도로	아프다 → 아플 정도로
자음으로 끝남	-을 정도로	죽다 → 죽을 정도로
ㄹ로 끝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정도로
정도를 문장 끝에	-(으)ㄹ 정도이다	아플 정도였어요
명사와 함께	약, 쯤	한 시간 정도
비슷한 표현	-(으)ㄹ 만큼	아플 만큼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만들다는 만들 정도로가 됩니다. 정도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앞 절은 정도를 나타내고, 뒤에는 그 정도에 이른 내용이 옵니다: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웃었어요 — 배가 아플 만큼 웃었다는 뜻입니다.

순서를 바꾸면 -(으)ㄹ 정도이다가 되어 정도가 문장 끝에 옵니다: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.

명사 뒤의 정도는 '약, 쯤'이라는 뜻입니다: 한 시간 정도, 열 명 정도. 같은 단어지만 역할이 꽤 다릅니다.

■ 예문

- 1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웃었어요.
- 2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셨어요.
- 3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매웠어요.
- 4 직접 만들 정도로 요리를 좋아해요.
- 5 그날은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.
- 6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.

■ 비교

-(으)ㄹ 만큼

매우 비슷합니다. 만큼은 양이 맞먹는다는 점을, 정도로는 어떤 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대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.

아플 만큼 웃었어요. /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.

-게

-게도 절을 방식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바꾸지만 담백합니다. 정도로는 얼마나 심했는지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.

크게 웃었어요. (크게 웃었다) /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. (배가 아플 만큼 웃었다)

명사 + 정도

명사 바로 뒤에서는 '대략'이라는 뜻입니다. 두 용법은 형태가 같지만 문맥상 헷갈리는 일은 드뭅니다.

아플 정도로 (아플 만큼) / 한 시간 정도 (한 시간쯤)

■ 주의

✗ 직접 만들을 정도로 요리를 좋아해요.

○ 직접 만들 정도로 요리를 좋아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만해요처럼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✗ 배가 아플정도로 웃었어요.

○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.

정도는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

✗ 많이 웃을 정도로 배가 아팠어요.

○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웃었어요.

정도로 앞의 절은 극단적인 정도를, 주절은 그 정도에 이른 내용을 나타냅니다. 둘을 바꾸면 뜻이 뒤집힙니다.